

# 한국어를 하는 것과 아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박 동 호  
교수 · 한국어학

바야흐로 한류의 시대다. 한국 음악,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 한류 붐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분야가 한국어교육이다. 외국인들은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노래 가사의 뜻을 알기 위해,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의 대사를 직접 알아듣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은 국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아는가? 나는 한국어학과 교수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는 한국어학과, 서울캠퍼스에는 국어국문학과가 있다. 한국어학과는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에, 국어국문학과는 서울캠퍼스 문과대학에 있다. 한국어학과는 왜 외국어대학에 있고 과명을 국어학도가 아닌 한국어학과로 했을까? 국어란 한국 사람이 자신의 모국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국어란 말을 쓰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다. 국어란 한국 사람이 자신의 모국어를 모국어가 아닌 전 세계 많은 언어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 모국어를 부를 때 쓰는 말이다. 우리 모국어는 외국인의 학습 대상이 될 때 '외국어 혹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orean as a foreign or second language)'가 된다.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의 설립 목적은 전 세계적이며 객관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연구하거나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교수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국어학도가 아닌 한국어학과라는 명칭을 쓴다. 경희대학교에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모토가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한의과대학, 국어국문학과, 태권도학과가 먼저 설립됐고 이어서 한국 최초로 1999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연구하고 교수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한국어학과다.

한국어를 하는 것과 아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는 한국어를 단지 잘할 뿐 잘 알지 못한다.

(사진=언스플래쉬)

“

우리가 이유를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한국어를 습득했지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자신이 한국어를 잘하고 따라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한국어를 정말 잘한다. 한국어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완벽하게 한다. 왜 이렇게 한국어를 잘할까? 한국어를 학습(learning)한 것이 아니라 습득(acquisition)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갓난아이나 유아 시절 한국어를 배웠던 기억이 있는가? 모국어인 한국어를 습득하면서 ‘이/가’는 주격조사고 ‘을/를’은 목적격조사예요., ‘덱어요’가 아니라 ‘더워요’로 써야 해요.’와 같은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가? 절대 그럴 리 없다. 우리는 한국어를 습득했지 학습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한국어를 잘 알고 있는가? 대답은 ‘아니오!’다. 한국어를 하는 것과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외국인이 한국어로 말하거나 쓸 때 틀린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왜 틀렸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한국어를 습득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곤충인 ‘잠자리’는 [잠자리]로, 잠을 자는

장소인 ‘잠자리’는 [잠짜리]로 다르게 발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곤충 ‘잠자리’는 단일어, 장소 ‘잠자리’는 순수 한국어 ‘잠’과 ‘자리’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기 때문이다(‘잠’은 받침 위치에 공명음에 속하는 비음 /ㅁ/가 오히려 /ㄷ/가 첨가되고 경음화가 일어남).

‘배가 고파서 밥 먹자.’라고 왜 말  
할 수 없는가? ‘배가 고프니까 밥  
먹자.’로 고쳐 말해야 한다. ‘-아서/  
어서’ 뒤에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친구를 만나러 카페에서 기다렸어요.’는 왜 틀린 문장인가? ‘-(으)러’를 ‘-(으)려고’로 대체해 ‘친구를 만나려고 카페에서 기다렸어요.’로 써야 한다. ‘-(으)러’ 뒤에는 ‘가다’, ‘오다’ 등과 같은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만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외국인이 제기하는 이와 같은 의문에 적절히 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유를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한국어를 습득했지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어를

단지 잘할 뿐 잘 알지 못한다.

우리 대부분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단지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큰 착각이다. 우리는 한국어를 잘하지만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한국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한국어를 먼저 잘 알아야 한다. 한국어학과에 입학하는 대부분 학생도 자신이 한국어를 잘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 즉 교수학만을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수학만을 공부해서는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없다. 한국어교육은 크게 내용학과 교수학으로 나뉜다. 한국어의 현상을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배우는 것이 내용학이며 한국어를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교수학이다. 한국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용학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 한국어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다.